“벽암각성, 호국으로 불교 업그레이드”

정운 스님, 10월 21일 보조사상硏 학술대회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벽암 각성(1574~1659)은 평생동안 불사에 힘을 기울여 문화 · 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호국을 통해 조선 역사에 불교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킨 선지식입니다.”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10월 21일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제30차 국내학술대회에서 ‘벽암 각성의 행적과 사상’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운 스님은 벽암 각성의 시대적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과 사상의 저변을 살폈다. 벽암 각성은 14세에 스승 부휴를 만났고, 26세에 전강을 받았다. 부휴가 송광사와 인연이 되면서 송광사는 부휴계 사찰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후 호남 · 경상도 지역 일대에 각성의 문파들이 활동했다. 벽암 각성은 임진왜란 때 스승 대신 전쟁에 참여했고, 조정의 부탁으로 남한산성을 축성했다. 병자호란 때는 항마군을 조직해 의승군 활동을 했으며, 무주 적상산성을 관리했다.

특히 정운 스님은 벽암 각성의 의승군 활동에 주목했다. 정운 스님에 따르면 벽암 각성은 평생에 걸쳐 도총섭(都摠攝) 칭호를 3번 받았다. 당시 조정에서는 전쟁 중에 의승군을 조직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승장에게 직책을 수여했는데, 처음에는 최고위직을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로 명했다. 하지만 승려의 위상이 높아지고 불교의 입지가 강화될 조짐이 있자, 대신 도총섭의 직책을 내렸다. 전쟁에서 전체 의승군을 통솔한 도총섭은 ‘승병의 공훈을 평가 · 보고하고 승군 활동의 대가로 발급된 선과첩을 직접 배급’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졌다.

정운 스님은 “승려들이 승병으로 활동함은 불교 교단과 집권층 사대부와의 이념 및 실제적인 마찰을 피함으로써 교단 유지에 기여코자 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왜란과 호란으로 승려들이 의승군을 자처했던 것은 단순히 근왕(勤王)과 호국만은 아니었다. 의승군 승려들은 호국이 곧 호법(護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벽암 각성의 저서와 비문, 각종 자료에 드러난 선사상에 대해서도 살폈다. 특히 법주사와 화엄사 비문, 〈대각등계집〉, 〈송광사지〉에 확인되는 벽암 각성의 행적에서 그의 선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해인사 국일암의 벽암 각성 선사의 진영.

도총섭 칭호만 3번 받은 선사
“의승군 호국, 호법에 가까워”
임제사상 바탕 무자 화두 중시
수선사 정신 조명 논문들 발표

〈대각등계집〉에는 “부휴는 벽암 각성을 불러 법을 부촉하고 임제종의 교리를 크게 떨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운 스님은 “부휴의 사상이 임제선풍의 종지를 선양했고, 각성 또한 임제선풍의 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선은 이론적으로는 조사선이고, 실천행적인 측면에서는 간화선이다. 임제를 거론함은 조사선 사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벽암 각성은 임제 사상을 바탕으로 한 ‘무자’ 화두를 중시한 선수행자였다”고 강조했다.

‘조선후기 수선사 정신의 계승’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부휴선수를 비롯한 선지식들의 사상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주요 발표로는 △‘조선중기 이후 한국불교의 특징과 부휴선수(박재현, 동명대)’ △‘조선후기 송광사 중흥과 백암성총(오경후, 동국대)’ △‘회암정혜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 대한 관점(이병욱, 고려대)’ △‘금명보정의 전통인식과 교화활동(김경집, 한국전통문화대)’이 발표됐다.

논평자로는 마해륜(고려대), 최연식(동국대), 최성렬(조선대), 김용태(동국대) 등이 참여했다.

삼척 천은사 불교문화유산 면면 살핀다

불교문화재연구소 · 삼척시 10월 28일 학술대회

삼척 천은사가 소장한 불교문화유산의 면면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삼척시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1시30분 삼척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삼척 천은사의 역사와 불교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삼척지역 불교문화와 천은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천은사 소장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총3부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천은사 역사를 기록한 〈두타산천은사기실비〉를 중심으로 1부 ‘삼척 불교문화와 천은사의 역사’를 살펴보고,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복장유물을 주제로 2부 ‘삼척 불교조각과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가치’가 진행된다. 3부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주요 논문으로는 △홍영호 하슬라문화재연구소장의 ‘삼척 지역 불교문화의 전개 과정’ △김도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의 ‘삼척 천은사의 역사와 〈두타산천은사기실비〉’ △유근자 동국대 초빙교수의 ‘삼척의 불교조각과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복장 기록 분석’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의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연구’가 발표된다.

차장섭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함께 이서현 용인시청 학예연구사, 심현용 울진봉평리신라비전시관장, 정성권 단국대 학술연구교수, 조태건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사 등이 참여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학술대회는 삼척의 불교문화와 천은사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두타산천은사기실비〉와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대학원, ‘뉴미디어창작 전공’ 신설

문예창작학과에 국내 최초로
정윤정 등 스타 강사진 초빙해
11월 9~26일 내년 석사과정 모집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 뉴미디어창작 전공이 신설됐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정달영)은 “문예창작학과에 ‘뉴미디어 창작’ 전공을 신설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26일까지 2023년 전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원 최초로 개설한 ‘뉴미디어창작 전공’은 웹드라마, 웹소설 등 인터넷 시대의 문학 장르를 다룬다. K-컬쳐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작가와 각색자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문인의 산실인 동국대의 ‘뉴미디어창작 전공’ 신설은 더욱 주목된다.

이번 뉴미디어창작 전공 신설로 뉴미디어 산업에 명성이 높은 강사진도 초빙됐다. △드라마 ‘미생’ 작가인 정윤정(웹드라마), 김종방 작가컴퍼니 이사(웹소설), 오영진 문화평론가(AI와 창작) 등 대표적인 작가들을 강사로 영입했다.

한만수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책임교수는 “신경림, 조정래 등 걸출한 작가들을 배출한 동국대는 이번 뉴미디어창작 전공 신설을 계기로, 인터넷과 AI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문학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다”며 “웹소설, 웹드라마 등 뉴미디어창작 영역은 단지 변방 문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학의 한 가운데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전공별 약간 명이며, 세부 내용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02)2260-3606, 3608

신성민 기자

“십계탑으로 불교 교리 현대적 구현을”

불교학림 10월 14일 학술세미나
불교중흥 방안으로 십계탑 제안
관련 콘텐츠 활용 방안들 논의

불교 중흥을 위한 방안으로 십계탑 조성이 제안됐다.

불교학림은 10월 14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말과 글에 갇힌 불교,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학림은 지창규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와 신성현 교수가 중심이 돼 동국대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한 구성원들로 구성됐다.

지창규 교수는 ‘불교중흥을 위한 한 가지 제언 · 불교교리의 현대적 구현 방안’을 통해 십계탑 조성을 통한 불교교리 구현을 제안했다.

지 교수는 “경설의 구송(口誦)과 문자화는 불법(佛法) 전통의 계승과 중생교화 측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현대에서 불교는 문자화 이상의 또 다른 발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21세기 4차산업혁명이라는 절체절명의 현실 앞에 불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승이며,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불교학림은 10월 14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말과 글에 갇힌 불교,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창규 교수는 “대변신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상과 문화의 표현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완전히 쇄신해야 한다”면서 “변신만 한다면 불교가 가진 가능성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십계를 탑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 교수에 따르면 십계의 불계는 심우도와 영산회상도, 보살계는 선재동자와 싯다르타, 연각계는 달마 대사, 성문계는 삼장법사로 대표될 수 있다. 천상계는 명상의 공간이며, 인간계는 생로병사와 우비뇌고의 터이다. 수라계는 투쟁과 대립의 싸움터이며, 아귀계는 욕망과 탐심의 소굴이다. 축생계는 본능의 세계이고 식욕과 지배욕과 성욕이외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며, 지옥계는 그대로가 고통의 세계다. 지 교수는 “십계탑은 십계를 지옥부터 부처까지 경험토록 하는 것이다. 십계 경험을 통해 나의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십계탑이 불교교육의 체험적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이나 글만 가지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어려운 과정도 체험을 통하여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면서 “십계탑을 통한 체험으로 큰 어려움 없이 십계에 다가설 수 있고, 그 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성구 前 이화여대 대학원장이 ‘십계호구와 일념삼천에 대한 현대 과학적 고찰’을, 황신모 前 청주대 총장이 ‘탑의 변천사와 천태적 해석’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지옥계 연구’를, 고성은 불교미술 작가가 ‘십계도’를, 서정원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가 ‘십계탑, 간경에서 견성으로’ 등을 주제발표했다.

신성현 교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금강대 교수 광도 스님, 김용환 한마음선원 실장, 허남결 동국대 교수, 구광국 아제여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中석굴사원 불교미술 알고 싶다면

불교중앙박물관 문화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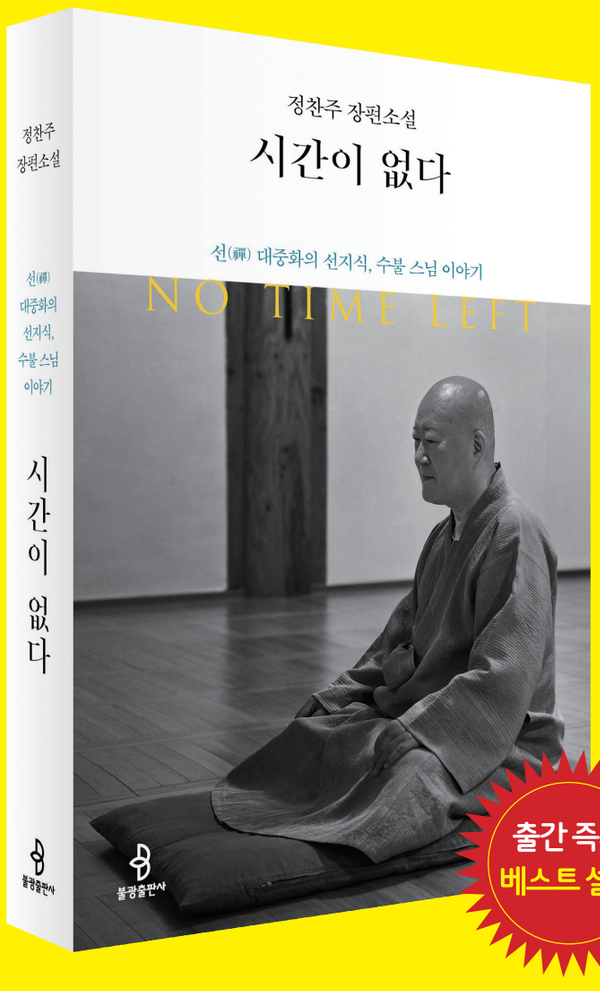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미등)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국 석굴사원에서 만나는 불교미술’을 주제로 불교문화강좌를 개최한다.

강연은 돈황석굴부터 운강, 용문석굴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석굴사원의 불교미술 전반을 살피며, 강사로는 임영애 동국대 문화재학과 교수가 나선다. 강연 일정은 10월 24일, 11월 7일, 11월 14일, 11월 21일 오후 2~4시이다.

신성민 기자

온몸으로
의심하라!
7일 안에
체험할 수 있다!

간화선 현대화의 선구자이자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
수불 스님의 삶과 수행을 통해 배우는 간화선의 맛!



“심오한 정신세계를
흥미진진한 소설로 풀어내는
최고의 이야기꾼”

글 짓는 수행자 정찬주 작가의 내공으로 빚어낸 역작
수불 스님의 간화선 대중화 대원력을 소설로 만나다!

“수불은 단호하게 결심했다. 일상생활이 바쁜 신도들에게 일주일 안으로 화두 체험을 시키지 못할 실력이라면 포교당을 접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도를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포교당 운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수불은 옛 조사들의 공안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활구를 제시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_본문 중에서

출간 즉시 베스트 셀러

정찬주 장편소설
시간이 없다
선(禪) 대중화의 선지식, 수불 스님 이야기
정찬주 지음 | 416쪽 | 18,000원